알타이系語 硏究方法攷

朴 時 仁

1. 알타이系에 속하는 國語
2. 文法의 共通性
3. 語音의 移動과 性別
4. 文字와 正音
5. ㆆㅎㅿㅇ
6. 알타이系語의 移動과 語源

1. 알타이系에 속하는 國語

오늘날 우리 國語를 硏究하는 內外學者들의 數는 世宗大王 在位時에 集賢殿에 모이어 國字를 創製한 때의 數 보다 비교도 안 될 程度로 많다. 國語의 文法 語音 單語 古語 方言 俗語 等 各分野에서 通時的 共時的 硏究가 샅샅이 進行되고 있다. 일찌기 梁柱東博士는 三國時代의 國語에 관하여 많은 疑問을 풀으셨고, 李崇寧, 金亨奎 兩博士는 國語가 Altaic 語에 속함을 거듭 力說하고 계시다. 그러나 旺盛은 하지만 國內의 國語學者들의 硏究의 分布를 보면, 이들 碩學이 가리킨 大路를 가는 이는 적고, 時間的으로는 國字制定을 넘지 못 하고 地理的으로는 좁은 半島 안에 스스로 갇혀 있다. 오늘의 위축된 우리 民族의 狀況 그대로이다. 이러한 狀況이 계속 支配하게 된다면, 우리 民族도 國語도 自立이 어렵지 않을 수 없다. 무릇 科學이란 가치판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秩序化하는데 의의가 있으니, 대상의 運命에 관여할바 아니지만, 우리 國語는 과연 이와 같이 制限된 것인가? 決코 아니다. 國語의 範圍는 吾民族의 範圍며 吾民族은 時間的으로는 三國以前의 原始部族社會로 아득히 소급하고, 地理的으로는 索離(後漢書115, 2a), 扶餘, 高句

麗, 百濟, 加羅, 新羅, 日本을 덮고 있다. 索離에서 더 北上하면 알타이山脈을 넘고 中央아시아 大平原을 건너서 아득한 西方에 通하였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알타이 人文의 移動에 관한 研究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니, 여기서는 多言을 피하고, 다만 言語에 관계된 것만 몇 行을 古記에서 移記한다.

「挹婁古肅愼之國也 在夫餘東北千餘里 東濱大海 南與北沃沮接 不知其北所極 土地多山險人形似夫餘而言語各異」(挹婁)「夫餘別種 故言語法則多同」(後漢書·高句驪)「言語飮食居處衣服有似句驪」(沃沮) 「與句驪同種言語法俗大抵相類」(濊)「豆莫婁國在勿吉北千里…舊北扶餘也在失韋之東 東至於海 方二千里」(魏書 100) 「失韋國在勿吉北千里…語與庫莫奚契丹豆莫婁國同」(同)「靺鞨有粟末黑水兩部 皆臣屬于高麗 唐滅高麗 粟末保東牟山 漸彊大號渤海…黑水靺鞨居古肅愼地有山曰白山 蓋長白山 金國之所起焉」(金史·135·1a)

「韓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 馬韓在西 有五十四國 其北與樂浪南與倭接 辰韓在東 十有二國 其北與濊貊接 弁辰在辰韓之南 亦十有二國 其南亦與倭接 凡七十八國 伯濟是其一國焉 大者萬餘戶 小者數千家 各在山海之間 地合方四千餘里 東西以海爲限 皆古之辰國也 馬韓最大 共立其種爲辰王 都目支國 盡王三韓之地 其國先皆是馬韓種人焉…… 辰韓耆老自言秦之亡人 避苦役適韓國 馬韓割東界地與之…… 弁辰與辰韓雜居 城郭衣服皆同 言語風俗有異」(後漢書·弁辰)

倭亦文身便步戰兵仗與馬韓同……弁辰與辰韓雜居 亦有城郭 衣服居處與辰韓同 言語法俗相似(魏志·弁辰)

이러한 史料에 의거하여 史家들은 이 地域에 人種과 言語의 差가 심한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었다고 흔히 해석한다. 잠간 검토해 보기로 한다. 扶餘에서 沃沮濊까지는 같았다.

「挹婁古肅愼」은夫餘와「言語各異」라고 있다. 그러나 史書에 처음 나타났을 때의 肅愼의 땅은 中國北土였으며(左傳), 肅愼人의 楛矢에 맞은 새(隼)가 陳候之庭에 이르러 떨어질 程度의 가까운 거리였다.(國語,5·16). 肅愼은 契丹 扶餘 北扶餘 即 豆莫婁 등의 滿洲平野를 東漸하여 東滿沿海州地方에 이르러 挹婁 勿吉靺鞨이라고 불리웠다. 滿洲平原을 東漸하고「人形似夫餘」한 그들의 言語가 같은 平原을 索離——夫餘——高句驪로 南下한 夫餘人의 言語와 根本的으로 달랐을 수는 없다. 移動의 年代와 路線의 差로 言語에도 差는 있었을 것이니,「言語各異」란「言語有異」程度의 의미였다. 사실 靺鞨은 나중의 女直인데 女直語 즉 滿洲語는 下述하는 바와 같이 國語와 同系이다.

韓에 관해서 말하면, 「秦之亡人避苦役適韓國」이라고 自言한 것은, 설령 정말 秦之亡人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北方에서 移動해 왔음을 말한다. 移住地에서 그들은 群小國을 이루고, 馬韓人을 조상으로 알고, 馬韓人을 王으로 삼고 살았다. 馬韓——마리カン(古歌研究 71)——麻立干——mori khan 은 匈奴故地인 蒙古語다. 이 單語의 語源은 韓人의 秦에서 移住해 왔다는 말과 一致한다. 왜냐하면 秦의 先祖는

「中潏在西戎保西垂生蜚廉」(史記, 5·1a)에 보이는 바와 같이 匈奴地에 살았으며, 匈奴 역시 中國上古의 王族으로 알려졌다,

「匈奴其先祖夏后氏之苗裔也」(史記, 110, 1a)

그러므로 위에 引用한 古記는 요컨대 匈奴地 中央아시아 알타이 몽고地方에서 遼東과 北東滿洲를 거쳐서 各地로 移動分布한 것의 一部가 所謂 東夷民族인데, 오랜 時日에 걸쳐 계속된 移動이고 分布였으니, 地方的 差는 있었을 망정 言語가 根本的으로 같았다고 증언한다.

이러한 알타이系 大移動民族의 一地方語라는 것이 우리 國語의 根本的 性格이다. 그러므로 알타이系語 즉 匈奴系語 전체와 國語의 관계는 마치 國語 전체와 어느 一郡의 方言의 관계와 같다. 根本은 실하게 기르느냐, 末梢를 닳도록 다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다. 같은 알타이系語에 딸린 이웃나라 言語들과 國語의 중요한 共通點을 밝혀보기로 한다.

2. 文法의 共通性

알타이系의 여러 地方語로 된 글을 싣는다.

<Manchurian>

abka de šanggiyan morin wame, na de sahaliyan ilhan wane gashūfi, abka be den, na be
天 に 白 馬 殺し 地 に 黑 牛 殺し 誓つて 天 を 高い 地 を

jiramin seme gisurehe gisun be aifufi, mini elchin genehe niyalmai udafi gajire
厚い と 語つた 言 に 背いて 我が 使者 行つた 者の 買つて 連れ來る

ulha be, ududu jergi gaiha. (老檔1, 269)
家畜 を 數 度 奪つた.

abka de tafaci wan akū, na de dosici jurun akū.(老檔.280)
天 に 登るにも 梯子 なく 地 に 入るにも 穴 ない

<Mongolian>

Eme kuman ou aman inou maghoui uge yin egur bouyou.
(女 人 의 입 은 나쁜 말 의 둥우리 이다.)

La bouche d'une femme est une nid de mauvaises paroles.(Rochet. 108)

Eme kumun bogol oun uge dji bou dagha,
(女 人 從人 의 말 을 아니 따르라)

Ne t'assujétis pas aux paroles des esclaves et des femmes.(Rochet. 119)

<Turkestani>

Bul tambakoo shul din yakshi-rak ikan.
이 담배 그것 보다 좋 읍니다.

Batur oz-i-ning kilachi-birla watan-i-da ulturdi.(東洋言語學, 292—292)
將軍 자기의 劍 으로 自宅에서 죽었다.

<Hindustani>

Main Hindūstāni ko sikhā chāhtā hai.(同, 294)
나는 를 배우기를 원한 다.

<Ostiak>

tau sâgar-îwet kereš.
말 소보다 높다.

Sâgar jem, tau tomîwet jem.(Castrén, 32)
소 좋다, 말 그보다 좋다.

上記 例文들을 보면 알타이地方을 中心으로 東으로는 日本까지, 西로는 Finland 地方까지, 西南으로는 Turkey, 南으로는 Hindustan 까지 文法이 같다. 北은 北氷洋에 이르기 까지 같으므로, 中國과 印度의 一部 및 Europe 의 地中海岸을 除外한 Eurasia 全體의 言語가 알타이語系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Ostiak 語의 例까지 들고 「Finland 地方」까지 포함시킨 것이 의심스럽다면, 그 例文의 바로 위에서 Castrén 이 比較型에 關해서 한 말을 移記한다.

Comparation.

§ 72. Dem Mangel an Comparationsgraden hilft das Ostjakische, gleich manchen anderen finnischen, samojedischen und tatarischen Sprachen, durch Cassus und verschiedene Partikel ab. Meist dient der Ablativ des zum Vergleich gebrauchten Worts dazu, um sowohl den Comparativ als auch den Superlativ auszudrücken.

알타이系語는 Eurasia 의 北部全域을 포함한 大部分의 言語이다.

3. 語音의 移動과 性別

다음에는 알타이系語의 몇 地方語의 語音을 검토한다. 그들의 alphabet 는 이렇다.

(a) 母音

	單母音						移動母音
<Mong.>	ㅓ	ㅔ	ㅣ	ㅗ	ㅗ	ㅢ	
	a	e	i	o	ou	u	ai ei oi oui ui ao(Rochet)
<Man.>	ㅓ	ㅓ	ㅣ	ㅗ	ㅗ·	ㅢ	
	a	e	i	o	u	ū	ai ei oi ui(Möllendorf)
<Kor.>	ㅏ	ㅓ	ㅣ	ㅗ	ㅜ	ㅡ	ㅓ ㅐ ㅔ ㅟ ㅓ 따위.
<Jap.>	ア	エ	イ	オ	ウ	ス(sū의 ū)	

(b) 子音

<Mong.>	ㅋ·	ㄱ	ㅋ	ㄱ	ㅋ	:ㅋ	の	ゐ	ネ	ネ:	어	어	ㅂ	ㅂ	ㄴ	ㄴ	ㅈ	カ	ㅈ	(Rochet)
	ng	n	k	g	kh	gh	b	p	s	ch	t	d	l	m	tch	dj	y	r	w	
<Man.>	ㅋ·	ㄱ	ㄱ·	ㄱ·	ㅋ。		の	ゐ	ネ	ク	어	어·	ㅂ	ㅁ	ㄴ	ㄴ	ㅈ	カ	ㄱ	ㅅ (Rochet)
	ng	n	k	g	kh		b	p	s	ch	t	d	l	m	tch	dj	y	r	f	w
<Kor.>	ㅇ	ㄴ	ㅋㄱ		ㅎ	ㅎ	ㅂㅃ	ㅍ	ㅆ	ㅅ	ㅌ	ㄷㄸ	ㄹ	ㅁ	ㅊ	ㅈㅉ		ㄹ		
<Jap.>	ンナ		カガ		ハ		バパ		ヌ	サ	タ	ダ		マ	チ	ザ	ヤ	ラ		ワ

母音에 관해서 말하면, 몽고語는 五字인데 ㅗ는 範圍가 넓어서 ㅗ와 ㅜ의 二音이므로 만주語 처럼 六母音이다. 國語도 「·」가 없어진 結果 같다. 그러나 ㅓ(Mong.) ㅓ·(Man.) エ(Jap.)와 같은 소리인 ㅔ(Kor.)는 國語에서는 單母音이 아니라 ㅓ에서 ㅣ로의 移動母音이라고 다루어졌다.

日本語에서는 國語의 ㅡ가 サ(ㅅ)行 タ(ㄷ)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ウ(ㅜ)속에 포함된 結果, 六母音이기는 하되 사실상 五母音이다. 移動母音은 日本語에서는 없어 졌다. 日本文字가 アイウエオ 五單母音과 終聲子音 ン/N/, ツ/Q/를 除外하고는 單子音+單母音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愛(애 アイ) 英(영 エイ) 따위도 二音節(syllable)로 延長되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單純한 問題가 아니다. 참고로 만주語를 보면, abkai jui(天의 子)의 abkai의 i는 國語의 「의」와 같아서 格을 나타내기 위해 添加된 것(particle)이니 abkai의 ai는 元來는 移動母音, diphthong이 아니라, 二單母音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abkai jui「압캐 쥐」(淸文鑑, 2, 1a)라고 발음한다. 國語의 경우도 「아이→애」「오이→외」「소의→쇠」처럼 단축된다. 이런 것을 종합하면, 알타이 系語에서는 二母音⇆移動母音⇆單母音 어느쪽으로든지 자유롭게 移動한다.

子音에 관해서 몽고語를 기준으로 말하면, 만주語에는 gh가 없고, p-b, t-d가 分化되고, 유독히 f가 더 있다. 國語에서는 ㄱ, ㄷ, ㅂ, ㅅ, ㅈ 등이 分化되어 많은 된 소리가

생기고, 한편 r와 l이 하나의 ㄹ로 줄어들었다. 單語 처음에 ㄹ을 쓰지 않는 알타이的 경향이 r, l이 分化된 만주語 보다 센점에 있어서 國語는 몽고語에 더 가깝다. 만주語에 있는 f가 없는 점에 있어서는 몽고語와 마찬가지다. y, w는 글자는 없으나, 各各 ㅑ, ㅘ 等의 처음에 있다.

日本語에서는 子音의 數가 상당히 줄어서, ㅊ, ㅋ, ㅌ, ㅍ, l, f가 없다. 이런 것을 종합하면, 알타이系語는 이 地方에서 地理的 時間的으로 南下함에 따라서 뒤의 소리가 줄어들고, 앞의 소리가 늘어나서 昭和하게 되었다. 日本語에서는 이 科程이 더욱 進行되어 牙音 ㅋ과 ㅊ이 새로히 없어지고, 分化된「앞의 소리」가운데서는 ㅍ, ㅌ 등 거칠은 무성음이 없어진다. 그러나 本土南端에 와서 비로소 分化된「앞의 소리」即 並書字音은 모두 있다. 뿐만 아니라, ㄱ(ㄷ, ㄸ)行의 子音은 ㅣ, ㅜ 앞에서는 C(チツ의 초성:服部. 362)가 되었다. 이것은 舌音이 齒音으로, 더욱 앞으로, 移動된 것이다.

上記 各 方言은 많은 子音이 앞으로 移動하였다. 國語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한다.

「十씹」(훈민정음,2a)「十십」,「佛曰孛(불), 風曰孛纜(불롬), 酒曰 酥孛(수불) 셜 불씨라, 수울자붓고」(國語史硏究,54—56)

이것으로 보아「ㅆ→ㅅ」「수불→수뷸→수울→술」로 移動하였다. 이 科程 즉 母音의 移動(umlaut, ablaut)과 함께 子音의 弱化退失(ㅂ→ㅸ→ㅇ)이 새로운 語形「술」을 가져왔다.

子音은 移動하여 弱化退失한 것뿐 아니라, 반대로 強化되기도 하였다.

「그스→ㅺ스→(꿋으다)→끌다

사흘다→싸흘다→(싸알다)→썰다

십다→씹다, 사호다→싸호다

버국새→(버꾹이)→뻐꾹새」(Ibid.71—72)

어떤 소리에서 다른 소리로 移動하는데 소요된 時日과 移動이 그친 年代를 決定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러나 移動의 方向이 ㅆ⇆ㅅ 처럼 相互的이 었으니 移動이 그친 것이 아니다. 따라서 固定도 固定의 年代도 있을 수 없다. 이 移動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은 移動의 方向이 通時的으로 相反된 것으로도 알 수 있으나, 共時的으로도 알 수 있다. 上記 例文中 (括孤) 안의 形은 오늘의 咸鏡 慶尙 地方의 말이니, 아직 移動中에 있음을 보여준다.「싸홈」이란 單語 자체도「싸움」「싸암」「쌈」따위 形이 나라 안에 가득하니, 아직

도 移動中에 있다. 이 경우에 「ㅆ」은 固定되었고 母音만 移動하니, 문제 밖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上述한 것을 반복하는 것이 되지만, 「ㅆ→ㅅ」 移動의 方向이 相互的이고, 母音의 移動은 新形을 초래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同一音에 있어서도 移動의 方向이 一定하지 않고 移動의 科程도 時間, 空間, 狀況에 따라서 다르니, 單語 形이란 言語의 大洋을 지배하는 큰 힘에 의하여 水面에 생겨났다가 변모하고 사라지는 파도들의 一時的인 形에 지나지 않는다. 이 大洋은 얼마나 큰가 차츰 보게 될 것이다.

알타이系語의 共通的 特質의 하나는 母音의 性別이다.

몽고語의 경우

„Les lettres KH et GH se placent seulement devant les voyelles *a*,(ㅏ)*o*(ㅗ) et *ou*(ㅜ); et les lettres K et G, dont l'usage seul peut indiquer la différence de prononciation, devant les voyelles *e*,(ㅓ) *i*(ㅣ) et *u*(ㅡ). (Rochet. 76)

strong(male) words are those in which the dominant(and accented) vowel is "a" or "o"; weak(female) are those whose dominant vowel is "ë," "e," "i" or "u" (Whymant, 5)

Rochet에 의하면 「ㅏ, ㅗ」와 「ㅜ」도 男性音, 「ㅓ, ㅣ, ㅡ」는 女性音이다. 그리고 accent 가있는 母音의 性別을 따라 單語의 性別이 決定된다. gájir(地)은 男性, nuhur(友)은 女性이다. 單語의 이러한 性別은 그것이 의미하는 사물의 自然的 性別과 관계가 있다.

"Strong vowels attract strong vowels and when strong and weak are present in one and the same word, the weak vowel is often elided."(Ibid. 5—6)

이러한 vowel attraction이 있는 결과 gájir da(땅에), nuhur de(벗에)처럼 같은「에」도 母音의 性에 一致하게끔 da, de의 二形이 있다.

만주語의 경우

a(ㅏ)가 男性, e(ㅓ)가 女性이라는 것은 대단히 센 특질이다. 다른 모든 소리는 같고 a, e가 바뀌어진 결과 男女, 強弱, 上下의 차별이 생긴 아래와 같은 例가 있다.

(ama 애비 (amha 가시애비 (haha 사 내 (alioi 律 (hadai 쐐기
(eme 에미 (emhe 가시에미 (hehe 에미네 (elioi 呂 (hedei 쐐기구멍 (上原. 68—69)

Rochet에 의하면 alphabet mantchou의 P,T,F는 字形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Devant les voyelles E,I, OU et ô," 他는 „devant A et O"에 쓰이고, K, G, KH도 字形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avant ou après les voyelles E, I et OU", 他는 "avant ou après les voyelles A,O et ô"에 쓰인다. (Rochet. 2—3). 이 말에 의하면 a(ㅏ), o(ㅗ)는 男性音, e(ㅓ) i(ㅣ) ou(ㅜ)는 女性이고, ô(ㅡ)는 앞子音(front consonant)인 P,T, K 다음에서는 앞母音(front vowel)인 e의 그룹이어서 女性이고, 뒤子音(back consonant)인 K, G, KH 다음에서는 뒤母音(back vowel)인 a의 그룹이어서 男性이다. 그런데 ô(ㅡ)는 K, G,KH 아닌 子

音과 結合되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대개는 男性이다.

上述한 바를 요약하면,

	+	−	
Mong.	a ㅏ　o‿u ㅗ ㅜ	e ㅓ　i ㅣ　ö‿ü ㅡ	(Rochet 表音法)
Man.	a ㅏ　o ㅗ　ū ㅡ	e ㅓ　i ㅣ　u ㅜ	(Möllendorf 表音法)

ㅏ, ㅗ가 男性, ㅓ, ㅣ가 女性임은 같지만, 몽고語에서 男性的인 ㅜ가 만주語에서 女性이고, 몽고語에서 女性인 ㅡ가 만주語에서 男性임은 이 두 소리가 移動性이 強함을 보여준다. 단 Whymant에 의하면 몽고 語에서도 ㅜ는 女性이다.

上記 二地方語의 소리의 性別에 관해서는 이것으로 그친다. 그런데 하나 언급해 둘것은 소위中性母音이라는 것이다. 竹內씨는 몽고語의 i(ㅣ)가 中性이라 하였고(p.8), 上原씨는 만주語의 i(ㅣ), u(ㅜ)가 中性이라고 하였다(p.69), 中性母音을 인정한 이유는 上原씨에 의하면,

[男性母音と女性母音とは] 語中に 原則として共存しないが, これに對して u•i は兩者のいづれにも共存し得ることが, 中性母音として前二者とは別に類別すれることの理由である.」(p.69)

이것은 各母音은 本性을 지키지, 移動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알타이系 母音은 移動에 큰 자유가 있음을 우리는 안다. 무릇 異性의 共存에서 서로 他를 닮게 되는 듯이 알타이系 母音은 同性끼리 끄는 힘이 있는 反面에 一性에서 他性으로 그치지 않고 移動한다.

만주語의 경우를 例로 들면, 千六百餘單語에 쓰인 母音들의 引力(attraction)에 관한 上原씨 자신의 조사에 의하면 :

他 \ 初	a ㅏ	o ㅗ	ū ㅡ	u ㅜ	i ㅣ	e ㅓ
a ㅏ	923	15	35	136	119	
o ㅗ	2	361	0	0	12	5
ū ㅡ	39	0	41	10	8	0
u ㅜ	94	4	10	406	52	87
i ㅡ	192	59	15	113	264	109
e ㅓ	18	4	3	131	54	593

이 조사는 單語의 初음절에 어떤 母音이 있을 때 他음절에 어떤 母音이 있느냐를 본 것인데, 어느 性의 것이든지 程度의 差는 있으나 모두 다른 性도 끄는 사실을 보여준다. 中性

을 인정한 理由가 引力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타당한가? 아래와 같은 理由로도 不可하다.

(1) 母音에 男女의 性別이 있고, 主母音의 性別引力이 그 單語의 他母音의 性別을 決定한다는 말은 그 單語中의 모든 他母音의 性을 반드시 決定한다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文法條에 실은 소수의 例文中의 單語들을 잠간 보아도 이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위에 移記한 上原씨의 統計는 좋은 참고자료는 되지만, 性을 決定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2) 主母音의 性이 單語의性을 決定하는데, 中性을 인정하려면 中性語를 인정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3) 中性이란 알타이系의 우주관(cosmology)에 존재하지 않는다.(알타이). 거기서는 다만 陽陰二性이 活動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우주관 속에 없는 中性이 그들의 言語속에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

Das heisst also: die Sprache ist keine Erfindung, sondern eine Entstehung order Erzeugung im Geiste; kein durch Verstand vermitteltes Werk, keine absichtliche Verwendung eines gesuchten und gefundenen Mittels zur Abhülfe eines bewussten Bedürfnisses, auch nicht eine glückliche Benutzung eines Zufalls zur Bereicherung des geistigen Wirkens……; sondern die Sprache is geworden, ohne gewollt zu sein. Die unbewusst bleibenden und doch die Elemente des Bewusstseins beherrschenden Gesetze wirken und führen die Schöpfung aus.(Steinthal. 82)

Hier ist es wesentlich, dies festhinzustellen, dass das Sprechen ewing ein Zeugen, eine beschränkte Neuschöpfung ist. Immer fliesst sie uns aus dem verborgenen Quell in unsrer Seele zu. Unsere Erforschung des Ursprungs der Sprache bewegt sich also nicht um ein einmaliges, mehr or oder weniger von Zufälligkeiten Zusammengesetztes Ereignis der Urzeit, sondern um den zeitlosen, unwandelbaren Ursprung einer Kraft und Betätigung im Bewusstsein des Menschen überhaupt order um die Gesetze des Seelenlebens, nach denen Sprache wird—heute wie in der Urzeit und zu allen Stunden.(88—89)

上述한 理由로 中性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中性이란 術語도 버린다.

그러나 中性을 알아내기 위한 上原씨의 統計 및 그와 같은 종류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즉 알타이系語의 二性은 서로 서로 移動하는 過程에서 活動하고 있으며, 決코 休止死亡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移動을 음성科學으로 설명하면 a, o등 뒤의 소리는 男性이고, i, e등 앞의 소리는 女性이며, 그 사이의 다른 소리들은 移動한 程度만큼 二性이 中和한 것이다.

國語의 경우

아릐ᄋᆞ자ᄂᆞᆫ呑튼ㄷ字ᄍᆞᆼ가온ᄃᆞᆺ소리ᄀᆞᄐᆞ니라

ㅡ는即즉 字ᄍᆞᆼ 가온ᄃᆞᆺ소리ᄀᆞᄐᆞ니라

ㅣ는侵침ㅂ字ᄍᆞᆼ가온ᄃᆞᆺ소리ᄀᆞᄐᆞ니라

ㅗ는洪ᄒᆞᆼㄱ字ᄍᆞᆼ가온ᄃᆞᆺ소리ᄀᆞᄐᆞ니라

ㅏ는覃땀ㅂ字ᄍᆞᆼ가온ᄃᆞᆺ소리ᄀᆞᄐᆞ소리라

ㅜ는君군ㄷ字ᄍᆞᆼ가온ᄃᆞᆺ소리ᄀᆞᄐᆞ니라

ㅓ는業업 字ᄍᆞᆼ가온ᄃᆞᆺ소리ᄀᆞᄐᆞ니라(훈민정품, 9a—10a 原文의 傍點略)

七單母音이 있었다. 그런데, 同書에서 약간의 例를보면,

(1)「而ᅀᅵᆼᄂᆞᆫ입겨지라終즁ᄋᆞᆫᄆᆞᄎᆞ미라得득은어들씨라伸신은펼씨라」(2a)

(2)「初총發벓聲셩은처섬펴아나ᄂᆞᆫ소리라」(3b)

(3)「曰웧은ᄀᆞᆯᄋᆞ시다ᄒᆞᆯ씨라」(1a)

(4)「서르흘러通통티몯ᄒᆞᆫ논디라」(1b)

(1)은 오늘날「이는입겾(입겻, 입겾)이라, 종은마침이라, 득은어들씨라, 신은펼씨라」라고 하니,「ㅣㅏㅣ」가 通하였다.

(2)는 오늘날「초발성은 처음피어는소리라」라 하니,「ㅓㅏ」「ㅕㅓ」「ㅓㅡ」「ㅕㅣ」「ㅓㅏ」「ㅣㅏ」가 通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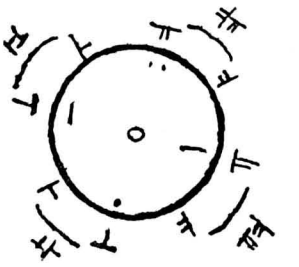
(3)은 오늘날「왈은갈아시다할씨라」라고 하니,「ㅝㅘ」「ㅣㅏ」가 通하였다.

(4)는 오누날「서로(서루) 통치못하는지라」라고 하니,「ㅡㅗ」「ㅣㅜ」「ㅣㅏ」「ㅗㅡ」가 通하였다. 上記한 바는 國語의 모든 母音은 ᄉᆞᄅᆞ(서르, 서로, 서루) 移動하여 다른 것이 되어 왔으며, 지금도 그러한 移動이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어떤 特定한 單語에 있어서는 母音의 時間的 地方的 移動과 그 限界를 더듬을 수 있으나, 그러한 移動과 限界는 大洋의 水面에 잠기 생기었다가 변모하고 사라지는 파도의 그것이니, 大洋 자체의 생리와 그것을 지배하는 기상적 기타의 條件을 떠나서는 의의가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이 말은 時間的 地方的으로 制限된 言語의 硏究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制限이 점차적으로 해제되어 全體性을 가지는 程度만큼 진실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眞>であるということは, もちろんこれをさらに理論的に認識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のである. というのは, 或る領域の究極の基抵は, その領域の內部においてこれを基礎づけることを得ず, それが可能とすれば, もつぱらその外部においてのみであるからである. たとへば, 幾何學の公理は幾何學的方法によつては證明されず, 法の根本概念は法學的方法によつては證明し得ないようなものである。個個の數學的定理は, 他に還元し得られるかぎり<眞>であるがこの還元の基礎でなり全體を擔うところの公理の眞理性そのものは數學的なそれではない. だからこう言うことができる. およそ數學的眞理性はもつぱらこの科學の個個の定理

のあいだにのみ存する。しかし全體としての科學はその公理に支持されるかぎりその個個の成分が眞であるというそれと同じ意味では眞ではないと。されば總じて證明し得る眞實というものはつねに個個の認識要素のあいだおよび或る第一事實や第一原理の前提に從つこのみ起こり得るのである」(Simmel. 144—145)

國語의 母音은, 알타이系에 속하는 이웃나라들의 言語의 母音처럼, 性別과 移動의自由를 가지고 男女二性 사이를 移動하였다. 그러한 移動의 中心音은 어느 것인가?



「훈민정음」의 母音「ㅡㅣㅗㅜㅏㅓ」모두가 十字의 部分인데, 十의 中心點이고 순서에 있어서 첫 글자인「ㅡ」다. (훈민정음 附錄=·14) 十八世紀의 國語學者旅菴申景濬은 다음과 같은 中聲圖를 그리고:

「中之○太極也 太極動而一陽生爲ㅡ 天一之象也 (中略) ○如木之仁 ㅡ如自其仁而一芽生」(訓民正音韻解·32)

그의 說은 의아스러운 점이 적지않다. 그러나 國語의 音을 陰陽說과 結付시킨 점은 深長한 의의가 있다.「ㅡ如自其仁而一芽生」이란 말을 日本紀 天地開闢 처음에 있는 다음것과 비교하라.

古天地未剖 陰陽不分 渾沌如鷄子 溟涬而含牙 及其清陽者薄靡而爲天 重濁者淹滯而爲地 精妙之合搏易 重焉之凝堪難 故天先成而後地定 然後神聖生其中焉 故曰開闢之初 洲壤浮漂 譬猶游魚之浮水上也 于時天地之中生一物 狀如葦牙 便化爲神」

「ㅡ」는 正히 陰陽으로 移動活動하는 뭇소리의 中心이다.

그러면 다른 소리들은 어떤가? ㅡ는 正音에서「ㅡ」다음으 먼저 있고, ㅣ는 그 아래 있을 뿐 아니라, 形狀으로 보아도 ㅡ는 위에「浮漂」하고 ㅣ는 아래에「淹滯」하니, ㅡ와 ㅣ의 관계는「上有天 下有地」(啓蒙篇)의 그것이다. 그런대 알타이系 拜天地日月山川의 原始信仰에서 天(ama,アマ)의 色은 北(amashi, amargi)의 色인 玄(kara, 加羅, カラ, クロ)이니 上天의 ㅡ은 坎(kam, 儉, 神, カム), 그 반대인 ㅣ는 下地의 離다.(易經·說卦)

ㅗ는 上, ㅜ는 下 즉 日出東上과 日入西下다. ㅏㅓ는 다 같이 ㅣ 즉 地에 따린 것이되,「·」(芽)의위치가 ㅏ는 東, ㅓ는 西다. 그러므로 ㅏㅓ는 中土「·」에 밀접하여 그 東西에서 생기는 소리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이면 國語의 七單母音의 위치는 이렇다.

이 그림에 있어서 坎離의 子午선의 卯方 ㅗㅏ는 陽, 酉方 ㅜㅓ는 陰이고, ㅡㅣ는 移動中이되, ㅡ는 坎干方, ㅣ는 離支方이다. 坎은 뒤이고, 離는 앞이니, ㅡ는 ㅏ처럼 뒤에서 나는 소리고, ㅣ는 ㅓ처럼 앞에서

나는 소리다. 따라서 ㅡ는 男性에 치우친, ㅣ는 女性에 치우친, 移動中의 소리다. 各地方語의 父(Mong. aba, Man ama, 아비), 母 또는 女(Mong. eme, Man. eme, 에미) 等語의 母音이 완전히 부합하니, 이것은 決코 國語에 限한 것이 아니라, 알타이系語의 根本的 우주관에서 나온 共通的 原理임을 알 수 있다.

알타이系語의 根本的 原理를 대표하는 國語의 七單母音을 國際語音表에 표시하면 대개 그림과 같다. 앞의 소리(front vowels)를 女性, 뒤의 소리(back vowels)를 男性이라고 하는 알타이的 우주관은 正音에서 分明하게 선양되었다. 世宗大王 在位時의 1443年의 集賢殿의 우리 言語科學은 科學時代라고 일커르는 二十世紀의 수준에 거의 완전히 다달았다.

	Front	Central	Back
Close	i y	ɨ ʉ ㅡ	ㅜ ɯ u
Half close	ɪ ʏ ㅣ e ø		ʊ ɤ o
Half open	ɛ œ	ㅓ ə ɜ	ㅗ ʌ ɔ
Open	æ a	ɐ	ㅏ ɑ ɒ

(E.B. 17. 775)

다만 한가지 科學的으로 ㅜ는 back vowel 이니 上陽인데 陰이라는 것만이 다르다. 그러나 그 反面에 그 時代의 科學은 이 時代의 科學이 상실한 宗教를 保全하고 文化의 全一性을 살려가지고 있었으니, 위의 하나의 결함을 보충하고도 남음이 얼마인지 헤아릴 수 없다.

日本語의 경우

日本語에서는 ㅈㅅ의 경우를 제외라고 國語의 ㅡ는 ㅜ(ウ)와 和同하고 말았으니, 편의상 五母音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ㅡ가 사실상 있으며, 本土의 경우에 비추어 과거에는 더 많았으리고 생각된다.

上述한 바를 요컨대, 몽고 만주地方語에는 母音과 單語의 性別이 있으며, 한국 日本地方語에도 母音의 性別 있고 根本原理도 같다. 그러므로 한국 일본語에도 母音의 性別을 따른 單語의 性別이 과거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한국語의 경우의 증거로서는 父(아비)·母(어미)를 보았다. 日本語의 경우의 증거로서는

「日本語の kokoro(心) とか atama(頭)の如く最初の母音が o(オ) a(ア)だと語全體が(オ), a(ア)であつたりする言葉が少くないのはそ[母音調和]の名殘だとも云れてゐる.」(竹内 8)

이것으로 한국 일본地方語에도 單語의 性別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관찰할 때 國語의 「바람」은 日本語에서 지금은 カゼ라고 하지만 本은 カザクルマ(風車)의 경우처럼 カザ였다는 것, 그리고 風神은 陽神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실 바람은 「붉흠」 明神 日神이었으

며, 몽고語의 burkhan(日神)의 移動이다.(알타이). 風神 本 陽神이 吾半島에서 「영동할만네」(韓國民俗考. 19—20)가 되고, 日本에서는 カザ(a-a)가 カゼ(a-e)로 女性化된 것은 語의 얼인 性力이 빠져서 活物이던 것이 死物로 되어가는 科程이다. 이와 같이 알타이系語語가 本始 가지고 있던 性은 Eurasia의 東端에서 地理的 時間的으로 南下함에 따라서 사라졌는데, 이것은 같은 大陸의 西端에서 Icelandic, Anglo-Saxon, German, English로 地理的 時間的으로 降下함에 따라서 사라진 것과 같다. 이 말은 Europe北方語의 性이 地中海岸語의 性이 아니라 알타이系語의 性과 同一系라는 뜻을 포함하는데, Anglo-Saxon語 heofon *m.*(天) eorþe *f.*(地) saē *f.m.*(海) sunne *f.*(日) mona *m.*(月)와 그 후예語의 性이 알타이以東과 같다. 그러므로 Eurasia大陸의 中央北部에 위치한 알타이地方에서 西로 간 끝에서도, 東으로 온 끝에서도 母音, 單語, 指示物의 性別이 같았다. 이것은 地中海岸에서 日神 Apollo, Jupiter가 男性이고, 月神 Artemis, Diana가 女性인 것과 正反對다.(알타이以東의 天地海의 性은 周易, 日 月의 性은 日本神話의 그것과 같다.) 그런데 왜 알타이文化에서 日神은 女性이고 月神은 男性이냐? 그리고 왜 地中海文化에서는 日神은 男性이고 月神은 女性이냐? 알타이 文化에서도 西洋에서도 왜 性이 바뀌었느냐? 우리 나라에서 日神은 왜 風神도 되었느냐? 國語의 「붉흠」이 日本語에서는 왜 全혀 비슷하지 않은 「カザ」가 되었느냐? 이러한 많은 疑問이 생긴다. 이에 대한 대답은 言語學만의 分野 안에서는 얻을 수 없고, 우주관의 세계로 進出하여 사람과 그가 사는 狀況의 관계를 探究함을 필요로 한다. 위에서 言語心理學者와Steinthal 藝術哲學者 Simmel의 말을 引用한 의도의 一端은 여기 있다. 그러나 그 세계로 移動하기 전에 語音을 다루던 끝에서 文字에 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4. 文字와 正音

알타이山脈 이 편의 上記 各地方語는 中國語와 다르고, 各地方語 서로 根本的으로 갖음은 보았다. 그런데, 몽고만주語의 文字가 같은데, 우리 文字는 어떤가?

몽고만주語는 母子音이 분리된 alphabet을 單語 단위로 떼어서 縱書하는데, 우리 文字는 音節單位로 成字하는 것만 다르다. 그러므로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 李王朝實錄 世宗二十五年 癸亥, 十二月에

「是月 上親制請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 凡于文字及本國俚語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正音(王錄. 4. 533 a)

同二十八年丙寅九月에

「是月訓民正音成 鄭麟趾序曰 有天地自然之聲 則必有天地自然之文 所以古人因聲制字 以通萬物之情 以載三才之道而 然後世不能易也 然四方風土區別 聲氣亦隨而異焉 盖外國之語

有聲而無其字 假中國之字以通其用 是猶柄鑿之鉏鋙也 豈能達而無礙乎… 吾東方禮樂文物侔擬華夏 但方言俚不與之同… 癸亥冬我 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曰訓民正音 象形而字 做古篆因聲而 音叶七調三極之義 二氣之妙莫不該括 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 簡而要精而通 故智者不崇朝而會 愚者可浹旬而學以解書 可以知其義 以是聽訟可以得其情 字韻則清濁之能卞 樂歌則律呂之克諧 無所用而不備 無所往而不達 雖風聲鶴淚鷄鳴狗吠 皆可得而書矣… 恭惟我 殿下天下縱之聖制度 施爲超越百王 正音之作 無所祖述而成於自然 豈以其至理之無所不在 而非人爲之私也」(王錄. 4. 702)

위에 移記한 것을 검토한다. 「四方風土區別 聲氣亦隨而異焉」은 各國의 言語가 서로 다른 것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國語가 中國語와 다르고, 몽고만주語와 같음을 잘 알고 있었다. 「方言俚語不與之同」의 之는 中國語를 가리키니 上述한 바를 半은 증언해 주고, 他半에 대해서는 증언을 회피한 것이다. 「盖外國之語有其聲而無其字 假中國文字以通其用 是猶柄鑿之鉏鋙也 豈能達而無礙乎」는 吾國의 吏讀, 金國文字, 女眞文字, 日本의 眞假名等이 모두 알타이系語에 中國文字를 借用한 것이 不合理하고 不便하였음을 말한다. 여기에 있어 몽고만주語의 alphabet를 언급치 않았음이 주목된다. 「吾東方禮樂文物侔擬華夏」에 나타난 拜中國 사상의 作用이었을 것이다. 「象形而字」라는 말은 中國文字가 象形文字라는 것과는 의미가 아주 다르다. 中國文字는 事物을 象形하였고 우리 것은 發言器官을 象形한 것이라니 종류가 다르다. 「做古篆」란 말도 당치 않는다. 왜냐하면 古篆는 曲線的인데 國字는 모든 母音字가 十字의 原理에서 나왔듯이 直線的이다. 뿐만 아니라, 古篆는 더욱 表意的인 中國文字며 따라서 一語一字인데, 우리 것은 완전한 表音文字며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하니 「做古篆 分爲初終聲 合之然後乃成」이란 있을 수 없는 말이다.

그러므로 禮曹判書 鄭麟趾의 正音序文은

(1) 國語가 中國語와 같지 않음을 시인하고, 알타이系語임을 언급치 않고,

(2) 國字가 外國文字를 모방한 表音文字임을 시인하고, 몽고만주의 글자가 역시 우리의 新字처럼 母子音이 分析된 것을 「合而然後乃成」함을 언급치 않았다. 그러나 몽고 글자는 이미 오래 전에 우리 나라에 移入되었었다.

「諸國各有所用文字 高麗忠肅王時 元公主所用畏吾兒 未知其如何」(訓民正音韻解. 12)

그것이 과연 오늘날의 몽고글자와 같았았는지 어떠하였는지 18世紀에는 알 수 없었으나, 忠肅王(1314—1330, 1332—1339)時代에서 一世紀 밖에 지나지 않은 新字制定時에 알려져 있었을 可能性이 많다. 뿐만 아니라 만주몽고 글자에는 •: 따위 加點과,

ㅓㅕㅗㅈㅊㅛㄱㅇㅣ

等 우리 新字와 모양이 같은 것이 많다. 그리고 몽고만주 alphabet에서 유사한 音의 差를 표시하는데 利用된 點은 우리 alphabet에서도 ㅑㅕㅛㅠㅇㅎㅊ 등에 쓰여 유사한 音의 差

를 표시하는데, 또는 四聲(accents)을 구별하는데 利用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新字를 制定하는데 中心的 구실을 한 成三問이 十三次나 遼東으로 가서 黃瓚으로부터 言語學을 배웠다는 사실이 있다.(李朝人物列傳. 90)

以上으로 같은 알타이系인 몽고만주의 語文을 研究하여 우리 正音의 新字를 作成한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우리 文字는 몽고만주것의 單純한 모방에 지나지 않았는가? 我를 a, 他를 b라 하면:

(1) a는 b의 字形을 더러는 그대로 利用하고, 더러는 改作 新作하였다. 그 때의 原理는 오랜 우주관과 새로운 研究에서 얻은 科學的 知識이 었으며, 이것에 따라서 語音을 類別하고 字形을 秩序化하였다. 그 結果 母音은 ㆍㅡㅣㅗㅜㅏㅓ 字音은 ㄱㅋㆁ(牙音), ㄷㅌㄴ(舌音), ㅂㅍㅁ(脣音), ㅈㅊㅅ(齒音), ㆆㅎㅇ(喉音), ㄹ(半舌音), △(半齒音)라는 秩序가 이루어졌다(훈민정음. 4b—9a)

(2) b는 同一한 音을 대표하는 글자도 쓰이는 위치에 따라서 形이 다른데, a는 어떤 狀況에 있어서도 一字一音의 原則을 確立하였다. 그러므로 몽고語는 25音(母音 6, 子音 19)에 文字가 79, 만주語는 25音(母音 6, 子音 19)에 文字가 93인데, 우리 新字는 28音(母音(7+4, 子音 17)에 文字가 28이다. 7+4의 4는 ㅛㅠㅑㅕ를 의미하는데, 이들 移動音은 ㅣ→ㅗ, ㅣ→ㅜ, ㅣ→ㅏ, ㅣ→ㅓ의 結合字다. ㅐ=ㅏㅣ, ㅔ=ㅓㅣ 따위는 分析하고, 이들은 分析하지 않은 것은 成字上의 고려에서였겠는데, 이 네개는 結合文字라 제외하면 正音은 24字였다.

그런데 旣述한 바와 같이 「ㆍ」는 그치지 않고 移動하는 母音들의 中央原音이며 오늘날은 文字上 자취를 감추었으며, ㆆㆁ△ 역시 이미 사라졌으니, 우리 文字는 결국 20뿐이다. 이와 같이 數도 形도 單純한 alphabet는 세계의 다른 어느 곳에 있는가?

(3) 이러한 글자를 가지고 우리는 음절 單位로 成字하며 縱橫左右로 쓴다. 그런데 몽고만주語는 語 單位로 成字하여 縱書한다. 日本文字는 음절 文字라 縱橫左右로 쓰지만, 음절 以下로 分解하였다가 다시 組立하지 못 하므로, 表音力이 극히 제한 되었다. 아직도 本質的으로 吏讀다. 그러나 우리 文字는 이 점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 結果 다만 二十字를 가지고 「無所用而不備 無所往而不達 雖風聲鶴淚鷄鳴狗吠 皆可得而書矣」

西洋의 alphabet도 상당히 큰 自由를 가졌다. 그것은 分解의 自由는 완전하지만 結合의 自由는 橫으로만 있고, 縱으로는 없다. 뿐만 아니라 語 單位로 끊어 쓰기만하지, 우리 文字처럼 음절 單位로 成字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시각에 대한 呼訴力이 우리 文字같이 크지 못하다. 國字를 풀어쓸 것을 주창하는 이가 있으나, 이는 그것이 가진바 鄭麟趾가 지적한 深大한 가치를 모른데서 나온 생각이다.

以上을 요컨대 우리 文字는 우리 言語가 소속하는 알타이系語의 광범하고 깊은 연구에 입각하여, 몽고만주文字의 字形을 빌되, 알타이的 우주관과 言語科學으로 秩序化한 結果, 가장 이상적인 文字가 되었다. 그러므로 알타이系語의 연구에는 西洋의 alphabet로 고쳐서 하느니 보다는 알타이系語 자체의 것인 우리의 alphabet를 利用하는 것이 적합하다.

5. ㆁㆆㅿㅇ

이 가운데 ㆁㆆㅿ은 이미 자취를 감추었고 ㅇ는 오늘날 初聲으로서는 mute, 終聲으로서는 ŋ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一字一音의 原則에서 벗어났다. 이들의 本 가치를 알아 보기 위하여 正音에서 관계부분을 移記한다.

「ㆁ는牙앙音흠이니如셩業업字쯩初총發벓聲셩ᄒᆞ니라

ㆁ는엄쏘리니業업字쯩처섬펴아나는소리ᄀᆞᄃᆞ니라」(4b)

「ㆆ는喉훙音흠이니如셩挹흡字쯩初총發벓聲셩ᄒᆞ니라 喉훙는 모기라

ㆆ는목소리니挹흡字쯩처섬펴아나는소리ᄀᆞᄃᆞ니라」(7b—8a)

ㅇ는喉훙音흠이니如셩欲욕字쯩初총發벓聲셩ᄒᆞ니라

ㅇ는목소리니欲욕字쯩처섬펴아나는소리ᄀᆞᄃᆞ니라」(8b)

「ㅿ는半반齒칭音흡이미如셩穰샹ㄱ字쯩初총發벓聲셩ᄒᆞ니라

ㅿ는半반니쏘리니穰샹ㄱ字쯩처섬펴아나는소리ᄀᆞᄃᆞ니라」(9a)

위의 글에서 ㆁㆆㅿ의 用例를 採集하고, 「훈민졍흠」의 다른 데서 더 찾아서 斜線뒤에 추가하고, 오늘의 소리를 括弧 안에 記入한다.

	初	終
ㆁ	牙앙(아) 業업(업)/語여(어)	聲셩(성) 穰샹(양)/相샹(상) 通통(통)
ㆆ	音흠(음) 挹흠(읍)/一힐(일)	發벓(발)/日읻(일) 八밣(팔) 得득(득) 國귁(국)
ㅿ	如셩(여) 처섬(처음) 二싱(이) 人신(인)	
ㅇ	欲욕(욕) 이니(이니) 펴아(피어)/與영(여)	牙앙(아) 如셩(여) 字쯩(자) 初총(초)

朴通事 諺解의 中國語, 大字典의 日本語도 대조한다.

	中國語 初	中國語 終	日本語 初	日本語 終
ㆁ	語 我 銀 유유 어오 인인		語 業 銀 ゴギ ゴゲ ゴギ ヨ フフ ンン	穰 ニジ ヤヤ ウウ
ㆆ	一 신이	日 八 國 得 싱이 방바 귁궈 듸더	挹 オイ フフ	日 八 國 得 ニジ ハハ ココ トト チツ チツ クク クク
ㅿ	人 然 신인 션연	二 子 時 事 如 슳을 즛즈 쑹스 슳스슈슈	人 然 ニジ ネゼ ンン ンン	二 子 時 ニジ ジヌ ジシ

ㅇ	與 유유	如 字 初 유유 ᄌᆞᄌᆞ 추추	與 欲 ヨヨ ヨヨ クク	如 字 初 ニジ ジシ ソシ ヨヨ ヨ

朴通事는 高麗下期 服元 時代의 作이라고 하며, 그것의 中國音은 「河內助敎授によれば, 左なるものは 四聲通攷所制の正音, 右なるものは 所謂俗音」(朴通事. 解題. 2) 그렇다면 「所謂俗音」은 알타이系 몽고族이 支配하던 時代의 音이다. 위에 移記한 자료에 의하여 ㆁㆆ△ㅇ의 음가를 알아낸다.

〔ㆁ〕 終聲의 ㆁ는 ŋ소리가 분명하다, 初聲도 같았는가? 語자의 경우

語

	中 國 語	國 語
俗	ㅇ	ㅇ
正	ㆁ	ㆁ

國語初聲의 ㆁ는 中國正音의 移入이며, 음가는 日本語에 비추어 ŋ 가 옳았다. 記紀時代의 日本語音硏究에서의 北里씨의 말을 引用한다.

「ここに於て當時の我邦の方言が如何に同一の音標假字の中に 包含せられたかを見ることが出來よう. 例へば同じカの內には正當のカを主座として, 方言のkha も含まれて居れば, またハより轉訛しで來たカも含れてと居るういう譯である. 從つて五十音組織の時に埒外に推出された所謂濁音ガザダバもこれに到しまでに, 如何なる徑路を經て來たものてあるかが判然する. ga の中には ng の分子もあり, za となるまでには sca の時代あり, ダは dha にて猶それ迄には ddha であつたこと, バは bha が 主腦であつて嘗つては bbha であつたやうにも思はれ, 本來のサの音は ca の 位置よりも遙かに後方であつた」(日本古代言語. 98—99)

이 글은 上代의 日本語의 語(영, ゴ, ギョ)따위의 初聲이 ŋ이 었음을 말한다. 日本語에서는 지금도 그런데, 上代國語에서도 그러하였음을 單的으로 보이기 위해 1688年 吾國普賢寺版 梵漢 諺文 並記 眞言集에서 採取한 「仰」字에 北里씨가 英字로 音價를 記入한 것을 移記한다.

ㅎ		仰
	ṄA	
ᄋᆞᆼ		ngang

(Ibid. 86 PLATE)

〔ㆆ〕 終聲에서 보면, (a) 日, 八의 경우(b) 國, 得의 경우

(a)

	中 國 語	國 語
俗		ㄹ
正	ㆆ	ᄅᆞᆼ

正音에서 俗音으로 移動함에 따라서 中國語ㆆ→mute, 國語ᄅᆞᆼ→ㄹ 式으로 차츰 앞으로 移

動하여 더 부드럽게 되었다.

(b)

	中 國 語	國 語
俗		ㄱ
正	ㄱ ㆆ	ㄱ

喉音ㆆ은 훈민정음의 「快쾡ㆆ字」「那낭ㆆ字」「步뽕ㅎ字」 等에 보면 ㅎ 같이 促音을 만들었는데, 子音의 순위가 ㄷㅌ, ㅂㅍ, ㅈㅊ, ㆆㅎ로 대조되니, ㅎ보다 부드러웠다. 그러므로 ㆆ은 pharyngal fricative (ħ)을 中心으로 移動하는 소리였다.

〔△〕 終聲으로서는 中國 正音에만 있고, 전혀 쓰이지 않았다. 단 中國 俗音에서 때로는 ㄹ 소리로 移行하여 조금 남아 있다. 그러므로 終聲 △도 역시 中國正音의 移入이라고 생각된다. 初聲으로서는 人, 然의 例에서 보면 中語에서도 國語에서도 正音에만 있었다.

	中 國 語	國 語
俗		
正	△	△

그런데 △는 半齒音이라고 하였는데, 半齒音이란 唇音(bi-labial)과 齒音(dental)의 사이의 소리겠는데, △는 쉬히 사라진 소리였으니, s,z에서 "Frictionless Continuants and Semi-vowels"에 속하는 labio-dental (*v*) 또는 dental(ɹ)의 사이를 移動한 소리였다. (△音攷 214)

〔○〕 ㅇ은 소리가 들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母音의 앞뒤에 쓰였으니, 口路가 터졌을 때의 呼氣音을 대표한 것이다. 따라서 glottal plosive (ʔ)

以上으로 ㆁ△는 「中國正音」에 많은 소리의 記號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이들이 알타이系에 속하는 國語에서 곧 자취를 감추게된 理由는 본래 初聲으로서는 異質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알타이系 言語에서는 k-kh-h는 큰自由를 가지 移動하였으므로, 그 세밀한 차도 다 表記하기 위해 ㆆㅇ가 使用되었고, ㆁ初聲은 主로 中國音을 代表하였다. 이제 正音의 모든 子音을 國際音聲記號(E.B. 17. 775)로 고치면 :

牙音	ㄱㅋㆁ	gkŋ	Velar
舌音	ㄷㅌㄴ	dtn	Dental and Alveolar
唇音	ㅂㅍㅁ	bpm	Bi-labial
齒音	ㅈㅊㅅ	z tʃ s	Dental and Alveolar
喉音	ㆆㅎㅇ	ħhʔ	pharyngal and Glottal
半舌音	ㄹ	r-l	Dental-alveolar
半齒音	△	s-z-*v*-ɹ	Labio-dental-alveolar

6. 알타이系語의 移動과 語源

알타이系人의 移動은 알타이山脈 이 편에서는 몽고, 만주, 我半島, 日本으로 벋었음을 本攷 처음에서 보았다. 北東만주에서 갈라진 다른 一脈은 Bering Strait를 건너서 아메리카로 移住해서, 소위 American Indians이라는 美洲의 原住民이되고, 中美의 Maya, 南美 北部의 Inca等 古代文化를 건설한 것도 그들이었음을 다른데서 설명하였다.(알타이)

알타이山脈 저 편에서는 그들은 Finland, Turkey等地까지 移動하였음을 本攷 처음에서 言語學的으로 보이었고, 다른데서는 原始 宗教面에서 지적하였다.(알타이)

住民이 이와 같이 移動해 살았으니, 西歐, 印度, 南中國을 제외한 北半球 全體에서 言語를 포함한 文化의 많은 分野에서 같은 特質이 발견될 것은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알타이人文의 大王國을 邊方으로 부터 蠶食해 온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16世紀부터 航海術과 小火器를 가지고 처음에는 各海岸의 나라들을, 다음에는 內陸으로 探險해 들어온 科學主義였다. Rim-land에서 떠나서 알타이文化의 中心地인 中央아시아에 들어서고, 또 알타이山 자체까지 넘나들 때,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地方의 人種과 文化가 흡사함에 놀라고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여러개의 산발적인 旅行記, 報告書가 나오고, 그것에 흥미를 가진 많은 사람들의 연구단체가 생겨서, 마침내 Central Asiatic Journal와 같은 우수한 기관도 설치되었다.

그들의 方法은 科學的이었다. 많은 것을 蒐集하고 관찰하고, 거기서 같은 것을 抽象하여 秩序化하는 것이었다. 이 方法은 言語硏究에서도 큰 성과를 가져왔다. 例로써 인간의 생명의 根本인 父, 母를 의미하는 두 單語를 科學的 方法으로 수집해 보면:

Jap.	ociki(日本風土, 4, 156) cici	omo(紀, 上, 83) imo(萬, 2000); haha
Kor.	aba, abi, abu	èmè, èmi, emi
Man.	ama, ecike (淸, 53, 7b)	eme, hehe
Buriat		emè
Yukaghir	ama, ečie	emei (北方語·206)
Orotung-Tungusen	ammen	
Mong.	aba, abu; ečike(秘, 5, 436)	eme; eke(秘, 1, 146)
Chalcha-Mong.		emé
Motorish	abam, abbesa	imam
Jeniseisch		ama
Olötisch an der Wolga		eme
Estnisch		emä

Finhländisch		ema
Koibalisch	ab	imad
Kamasisch	abam	
Kotten	op	ama
Inbazk	ob, óbo	am, ámma
Turkisch	baba	
Arabisch	abba	

(別注없는 것은 語原の 問題)

「父」에 관해서 말하면, 알타이 山脈을 分水嶺으로 子音이 東은 m, 西는 b(p)로 갈라졌는데, m와 b, p는 모두 bi-labial이며, 알타이系語에서 m와 b, p가 서로 많이 通한다. 그 증거로서는 알타이 以東의 地域의 우리 國語 aba, abi, abu의 b를 들 수 있고, 또 다음의 例文도 있다.

Koreanisch	Indogermanisch	Andere eurasische Sprachen
50. *mukop-ta* 95 schwer sein *muke* 260 Gewicht, Schwere (in/.*g,gh-k.* IIL.) Vg/. Nr. 67.	Entweder: *meg(h)*-WII, 257 gross. Oder: **muken-m* Haufen	Mandschu: *beki* stark, fest. (Häufiger *m—b* Wechsel in den altaischen Sprachen ist bekannt). Gilj.: *magâ* stark, teuer. Sumer.: *mag* hoch erhaben, viel (≪ursprünglisch: gross.≫).

(Euarsische Sprachfamilie. 149)

父, 母를 의미하는 上記 二語의 수집, 비교는 文法條에서 얻은 것과 같은 結論을 시사한다. 즉 알타이 地方에 높이 걸린 太陽이 八紘을 下照하는 듯이 人文이 移動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알타이 東方에서의 移動은 本攷 처음에 略述하였다. 알타이 西方에서의 移動에 관해서는 歷史가 증언하는 바 있지만, 여기서 자세히 記述할 수는 없으니, 하나의 例로서 Samoyedes에 관해서 대영백과 사전을 보면:

Samoyedes, a Neo-Siberian tribe spread in small groups from the Altai mountains down the basins of the Ob and Yenisei and along the shores of the arctic ocean from the mouth of the latter river to the White Sea subdivided into three main groups.(E.B. 19. 923)

그들의 原始宗教를 보면:

The religion is fetishism mixed with Shamanism, the shaman (tadji-bei) being a representative of the great divinity Nim.(E.B. 19. 923 f)

역시 우리 나라 原始宗教나 日本神道와 같은 shamanism였다.

그러면 알타이 東方의 言語에서,

몽 고 語	만 주 語	國 語	日 本 語
aba, abu; ečige eme; eke	ama; ecike eme; hehe	aba, abi, abu èmè, èmi, emi	オ チ キ; チ チ オモ, イモ; ハハ

日本語가 本土語와 다른 것은 어찌된 일일까? 오늘의 日本語보다 古事記 日本紀에 실린 古代의 日本語가 本土語에 더 가까왔던 것을 이미 보았다. 그러므로 日本紀(p. 74)에 보면 乳母(チオモ)라고 있으니, 日本語에서 母를 オモ(omo)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本土의 eme의 移動이 分明하다.

日本語는 古今을 通하여 天을 アマ(ama), アメ(ame)라고 한다. 그런데 만주語에서:

"*abkai djoui*, le Fils de Ciel, l'empérieur"(Rochet)

abka, muse be gosime ujimbi.(老檔. 287)
天 我等 を 愛しみ 養子

王을「天의子」라고 하였으니, アマ는 王의 父(ama)다. 日本語는 ama란 語를 王父 즉 天을 가리키는데만 使用하고, 本土에서는 單純히 父의 뜻으로 썼다. 이것은 日本民族이 王室을 中心으로 生活하여 왔음을 보여주는데, 日本王祖는 天孫이라고 하고, 天은 天孫이 日本으로 移住하기 전의 本國이다(알타이).

오늘의 日本語의 チチ, ハハ도 몽고 만주語의 移動인 것과, 父母는 古代에는 本土에서도 日本에서도 다 같이 ama, eme였음을 알았다. 本土의 ama, eme가 日本으로 건너가서 다른 것을 의미하였을 때에, 그것이 根本的으로 同一語임을 알아내는 것은 이 移動民族의 拜天地日月名山大川의 原始的 思考方式을 깊이 이해하는 것으로써만 可能하게 된다.

Steinthal의 말과 같이 "Sprache ist keine Erfindung, sondern eine Entstehung order Erzeugung im Geiste"이니 그것은 決코 새삼스러운 方法도 아닐 것인데, 이러한 原始的 思考方式을 더듬는 것은 오늘의 言語科學이 忘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忘却의 結果는 쌓이고 쌓여서, 古事記, 日本記, 風土紀, 姓氏錄, 萬葉集 等의 무수한 증언에도 不拘하고 地理的 條件에도 不拘하고 日本民族이 어떻게 形成되었는지 조차 스스로도 모르게 되었다. 그러한 例를 하나 들면:

「日本民族の 成立. 私の憶測では日本には繩文式時代に, ポリネシア語族のような音韻組織を持つた南方系の言語が行われていた. 彌生式文化の傳來とともに, アルタイ語的な文法體系と母音調和とを持つた朝鮮南部の言語が行われるようになり, 北九州から, 南へ, 東へと廣まり… 原始日本語が成立したであろう, おそらく琉球の諸言語が日本語的な性格を持つに至つたのも, 彌生式文化の傳播と同時であると見ることができるたらう.

ただ, 朝鮮からの言語の傳來は, 壓倒的多數, 人間の傳來を伴つてはいなかつたために, それ

までの言語の文法體系を變へることはできたけれども，語彙のいくつかは，變えずに殘した．そこに，われわれが，南方系の人體語を見出す原因がある．從つて，もし．日本語の系統は何かと問われるならば，日本語はアルタイ語系に屬するというべきである．しかしそれ以前に行われていた文化言語の影響によつて，日本語の語彙には，アルタイ語の親近性が少ししか見出されない．また，アルタイ語の語彙との親近性の少ないことの原因の一つは，日本に廣がつて來た言語が南朝鮮を經て來たものであり，南朝鮮でアルタイ系ならぬ，南方的要素を多くふくんだ民族の單語を多く取り入れた言語であつたことにある．(言語から見みた 日本と 韓國．35)

繩文土器가 아시아 本土에서 吾半島를 經由하여 건너간 것이 아니라고 보는 근거，日本뿐만 아니라 半島南部에 南太平洋人 乃至 그들의 文化가 가득히 移住했었다는 근거，아시아 本土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少數였다는 근거，少數의 文法體系가 남아 있고 多數의 文法 體系가 사라졌다는 근거，알타이系가 아니라는 것이 과연 알타이系가 아니라는 근거，南方系라는 것이 과연 南方系라는 근거，이러한 모든 근거가 무엇인가？ 그러한 근거는 하나도 없다．있다면 잘못 해석된 것 뿐이다．(알타이)

上述한바 原始的 思考方式을 利用한 方法을 좀 더 적용한다．方位語를 예로든다．

≪Mong.≫

aru 北，山陰，ardai 北方(東洋言語學．196)/zegün(秘,8,16) juune 左(Whymant)，/jêgun 東．jêguntai 左邊南(東洋言語學．189)/ëmün 南(Whymant)，emüne 南(和蒙．707) emüneči，emünedehi，ülge 南側(Ibid．707)/baraṙun 右(秘，1，40b)/baroon 西，barona 右(Whymant)

北陰，左東，右西였으니 사람이 南向으로 선 姿勢로 方向에 이름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Man.≫

amashi 北(東洋言語學．229) ama，*pere* (Rochet)．amji 伯父(老檔．287) amala，*apres*，*ensuite* (Rochet)

dergi 東(淸，1，50 a)．dergi，*dessus*，*superieure* (Rochet) falashi 南(東洋言語學．226) julergi 南(老檔．106)/wargi 西(老檔．107)

北은 ama(父)國，母國 根國下國이며，암(女)，엄(拇)，움(芽) ウム(產)，ウミ(海)의 語源임을 알 수 있다．ama，amashi，amala의 뜻에서 本，母，方位，時間의 先後，動作의 原因結果가 같은 비유로 思惟되었음을 본다．dergi는 東，東은 日上方位며，東，上，優가 同一語임은 性質의 上下도 같은 비유로써 思惟되었음을 알 수 있다．

julergi(南)은 몽고語 ülge(南)의 移動이고，wargi(西)는 몽고語 baroon(西)，barona(右)의 移動이 分明하며，사람은 本國 北方(ama)에서 南方으로 왔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이 單語의 移動이 國語의「바로」(右)라는 것도 알 수 있다．

≪Kor.≫

이미 baroon, barona→ wargi가 移入되었으니, 다른 三方을 가리키는 語도 移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것도 方位語에서 나왔다고 생각된다.

aru(北), 알, 閼川; 암, 奄利大水(好太王碑)/외, 왼, 烏伊(史. 13. 2), 倭山(史. 15. 3), 倭人(史 1. 2), dergi 鷄林(史. 1. 7)/줄, 「朱乙温源洞①677, 周乙温洞 ⑤121」(王錄引. 858)/바로, 바른, 右. (알타이)

≪Jap.≫

キタ의 タ는 몽고語 emünedehi의 dehi(方), 만주語 amji, dergi, wargi, amashi의 gi(기), ji(지), shi(시)로서 方位를 의미하였다. キ는 木 五行으로 말하면 木은 東이다. [倭訓栞 前編七] きい 紀伊はもと木國と書たるを, 私銅年間に好字を撰み, 二字を用ゐさせられしよりかく書也. 伊は紀の音の響なり.」(古事類苑. 地部. 28. 722)

天照大神을 모신 伊勢國의 枕語는 「かんかぜの」「かんかぜや」인데, 「天照大神の起させ給ふ風にやと聞えたり.」(枕語. 4. 161). 天照大神은 日神(불〈火, 吹〉カン burkhan)이므로 和國東表之地에 모시었다. 그런데 天照大神은 또한 天神(ama 坎)이므로 紀伊國은 熊(坎) 野有(aru・北) 馬村(紀, 上, 18)이라고 하였다. キタ는 坎데(神垈)의 단축인가 한다.

北을 キタ라고 함은 本土에는 보이지 않는다. 日本 古代엔 本土에서 처럼 am라고 하지는 않았을가? 伊勢國에 奄藝(am-gi)라는 地名이 있었다.

延喜式	倭名抄	拾芥抄	諸書	郡名考	天保鄕帳
アム キ 奄 藝	阿武 義 同	同	奄藝 國知 安藝 元	アン ギ 安 藝	同 (同上)

ヒムガシ, 比牟我志, 比牟加之(和. 5)의 ヒムガ는 日向 즉 日之始生을 向한 方(amashi의 shi, 方位) 즉 東.

그런데, 「東墟縣 一云 加知斤」(史. 37. 3—4)에 보면 東을 加知라고 하였는데 加知는 加之와 같다. 그런데 國語에서는 加之, 我志(枝, 岐 支) 아재비(아지+아비), 아디(ズーヒ 移動), 아들(母音의 移動)이 같았다. 그러므로 比牟我志는 힘아지 해아지 즉 「日子」. 國語의 강아지, 망아지, 송아지의 아지는 本 아지(ngaji)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東을 만주에서는 dergi, 半島, 南端 新羅에서도 鷄(dergi)라고 하였으니, 이 單語가 日本으로 持出되지는 않았는가? 되었다. 日本語 枕語 拷衾(タクブスマ)의 タク(닭)이 그것이다.

ミナミ와 비슷한 말은 本土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ミナミ는 日本에서 비로소 생긴 新語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알타이 地方에서부터 半島까지 移住한 ülge→julergi→朱乙은 日本에는 건너가지 않았는가? 日本語의 ツル(鶴)이 그것이라고 하겠다. jul(禹)의 ツル는 坎의 カメ와 긴밀한 관계인데, 이들은 곧 方位神의 朱雀과 玄武다. 國語에서 龜를 居北龜(事. 2. 47)라고 함은 그것

이 坎方神物이기 때문이고, 「자라」라는 말은 「フース移動」을 거친 「가라 kara 玄)」일 것이다.

ニシ는 倭訓栞에 있는대로 「日の往去(イニシ)の義」(東洋言語學. 204)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Ryuku≫

ニシ(北)

アガリ(東) 日上

フエー(南) (Man)<fala?

イリ(西) 琉球에서 北을 ニシ라고 한 것은 日本語의 ニシ(西)에서 왔다.

上記 各地方語는 모두 알타이系이지만, 一地에서 他로 移動한 때에 語音이 移動과 우주관의 若干의 변화가 있었다. 語音의 移動에 관한 것은 수집, 비교式의 從來의 方法만으로서 거의 足하지만, 思考方式의 移動을 알아야, ama가 本土에서 父, 日本에서 天父 즉 天을 의미한 것 처럼, ül→jul→朱乙(줄)→ツルが 同一語며, 本土에서 南을 의미하고 日本에서 朱雀을 의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보지 못하고 「日本語の語彙には, アルタイ語との親近性が少ししか見出されない」라고 말하는 것은 不可하다. 이 方法을 가리켜 우주관적 또는 原始的 思考方式에 의한 方法이라고 하였다. 原始的 思考方式 자체는 개념적 논리적이기 보다는 비유적, 다른 말로하면, 活喩的 活力的인 점에 특징이 있지만, 그 思考方式을 알아내는 것은 科學的 方法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上記 科學的 方法의 短은 科學的 方法 자체의 短이 아니라, 科學的 方法을 充分히 적용하지 않은데 기인하는 短이이니, 研究者의 短이다.

섬 나라라는 地理的 條件으로 本土를 여러번 짓밟은 動亂에 거의 전혀 휩쓸리지 않고, 최근에 西洋文化의 流入을 환영하기까지 내내 文化의 原形을 保守할 수 있은 日本은 活喩的 思考方式을 보여주는 많은 古記를 保存하고 있다. 和名抄에서 若干의 單語를 移記한다.

越前 古之乃三知乃久知 越後 古之乃美知乃之利 (和. 5. 9a) 前夫 和名之太乎 一云 毛止乃乎止古 後夫 和名伊波乎 一云 伊萬乃乎止古 (和.2. 20a)

前을 久知(口, 입), 後(뒤)를 之利(尻, 엄치), 舊(古, 幽, 死)를 之太(下) 또는 毛止(本), 今(現, 生)을 宇波(上)라고 말하였다. 事物 特히 人體의 比喩에 의하여 개념적인 時間, 空間도 이름지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言語, 藝術, 宗教의 共同의 出生地를 볼 수 있다. 이 活動活力的 深部로 들어가지 아니하고서는 言語, 藝術, 宗教의 本質은 決코 그 秘密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本攷에서는 몽고 만주語 및 若干의 特殊發音記號는 活字가 없어서 近似한 것으로 代用되었다.)

≪引 用 書≫

<日 本>

日本書紀 <六國史一卷> 東京 1940(紀)
倭名類聚鈔 日本古典刊行會版 1932(和名)
古事類苑 神宮司廳 1912
小倉進平 國語語原の問題 帝國學士院 1940
金澤庄三郎 日鮮同祖論 東京 1943
北里 闌 日本古代語音組織考解說東京 1925
大野晋 言語學から見た日本と韓國<金正柱編 韓來文化の後榮 下 所載> 東京 1963
福井久藏 枕語の研究と釋義 東京 1927
中島利一郎 東洋言語學建設 東京 1941
上田萬年等 大字典 東京
陸軍省 蒙古語大辭典 和蒙之部 下 東京 1933
竹內幾之助 蒙古語教本 東京 1941
佐佐木信綱編 萬葉集 岩波文庫 1943
上原久 滿文滿洲實錄の 研究 1960
服部四郎 言語學の 方法 1960
高橋盛北 孝方諸言語 概說 東京 1943

<韓>

三國史記 朝鮮史學會版 서울 1928(史)
三國遺事 朝鮮史學會版 서울 1928(事)
朝鮮王朝實錄 國史委版 서울 1943(王錄)
同 總索引
好太王碑
朴通事諺解 京城大法文學部版 서울 1943
訓훈民민正졍音흠 原本寫眞版 서울 1932
訓民正音韻解 朝鮮語學會版 서울 1938
韓漢清文鑑 延世大版 1955(清)
梁柱東 古歌研究 1960
李崇寧 △音攷〈서울大 論文集·人文·三〉 1956
金亨奎 國語史研究 서울 1962
김윤경 새로지은 국어학사 서울 1963
李家源 李朝人物列傳 서울 1965
宋錫夏 韓國民俗考 서울 1959
朴時仁 알타이系 始祖神話, 延烏郎 細烏女〈藝術院 藝術論文集 5〉 서울 1966
朴時仁 알타이系 始祖神話, 添山〈閑山權重輝先生華甲紀念論叢〉 서울 1966

<滿 蒙>

滿洲實錄 今西春秋本 1939
滿文老檔 東洋文庫版 東京 1955
全浙兵制考附 日本風土記 京都大 影印 1961
音譯蒙文元朝秘史 東京 1961 (秘)

<中 國>

史記 1882 上海 申報館 影印
欽定後漢書
魏志·魏書·金史 <二十四史>
易經
國語

<他>

Castrén: Nordische Reisen und Forschungen, St. Petersburg 1858
Rochet: Sentences, Maximes et Proverbes Mantchoux et Mongols, Paris 1875
Whymant: A Mongolian Grammar, London 1926
Koppelman: Eurasische Sprachfamilie, Heidelberg 1933

Steinthal: Einleitung in die Psychologie und Sprachwissenschaft, Berlin 1871

Simmel: Zur Philosophie der Kunst, Potsdam 1922<日本語版> 岩波文庫 1958

Encyclopaedia Britannica. 1955

Cleaseby, Vigfusson, Craigie: Icelandic-English Dictionary.

Bosworth and Toller: Anglo-Saxon Dictionary.

Resumé

1. **An Altaic Language, Korean:** References to the languages of the Tung-i (Estern Aliens) in Wei-chi, Hu-han-shu, Wei-shu, etc. have been studied, arriving at the conclusion that the peoples of Eastern Mongolia, Manchuria, and Korea all used dialects of one common language at the time of compilation of those histories.

2. **Common Grammar:** Aboriginal languages of the present-day Japan, Korea, Manchuria, mongolia, Turkestan, Hindustan, Ostiak-land have been compared to show that their grammatical structure is almost entirely the same.

3. **Shift of Speech Sounds and Genders:** The speech sounds of the four main sister dialects to the southeast of the Altaic region, Mongolian, Manchurian, Korean and Japanese have been compared, paying attention to the shift of consonants among and within different dialects and to the vowel attraction, a strong tendency common to all of them. The conclusion is that the consonantal shift is an intrinsic tendency that has been and still is in force in many directions, contrary to the common assumption that part of the shift ceased at certain dates after moving toward a strictly limited direction, and that the vowels are to be classed as masculine or feminine, the term neutral vowels being arbitrary and contradictory to the Altaic cosmology. The study of vowel attraction also revealed that the Altaic dialects, including Korean and Japanese, have had genders in all kinds of words, espicially in nouns.

4. **The Origin of the Korean Alphabet:** The Korean alphabet is commonly considered as having been invented by the scholars in the reign of King Se-jong. An analytical study of the Se-jong Chronicle betrayed that it has been made after intensive collective researches of the Mongolian and Mangolian dialects and borrwing, many of their letters, some after modifications. However, it was nota mere borrowing, but because of deep linguistic studies that preceded it the new Korean alphabet was made incomparably more scientific and simple,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one letter for one sound.

5. **Value of ㅇ ㅎ △ ㅇ:** The value of these obsolete letters are determined as below: ㅇ ŋ. ㅎ ħ, △s-z-v-ɹ, ㅇ ʔ.

6. **Comparative Etymological Inquiry:** As examples of unravelling etymological mystery of some of the unsolved Altaicwords, such basic words as for "father", "mother", "north", "east", "south", "west", etc. have been selected for clarification of their etymology by knowledge of the Altaic cosmology. For instance, Jap. *ama* (heaven) came from Man. *ama* (father), because in the Altaic cosmology heaven is father to the king who is in turn father to all his subjects.